

Emphysematous pyelonephritis는 주로 중증의 당뇨병에 합병되어 발생하는 드물면서도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질환이다. 이 질환은 gas를 생성하는 세균에 의해 신실질내에 gas가 발생하는 심한 신우신염의 일종으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도 그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내·외과적 응급질환이다.

Emphysematous pyelonephritis는 1898년 Kelley 등이 처음 보고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00에 미만이 보고된 희귀한 질환으로 주로 당뇨병에 합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도 본 질환이 발생된 보고도 있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는 *E. coli*가 가장 많으나 이 외에도 *Pseudomonas*, *Klebsiella*, *Aerobacter* 등에 의해 발생한 증례도 보고 되고 있다.

본 저자들은 조절되지 않은 심한 당뇨병을 가진 여자 환자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한 emphysematous pyelonephritis를 1예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6 —

狼瘡性腎炎의 組織病理學的 所見과 臨床的 活動度の 比較觀察

서울醫大 內科

安奎星·李勳輔·韓鎮錫·金聖權·崔成在·李正相

서울醫大 病理學

金 勇 一

全身性紅斑性狼瘡(以下 SLE라 略한다)은 여러 臟器를 侵犯하는 全身의 疾患으로써 그 經過가 매우 多樣하다. 特히 狼瘡性腎炎은 神經系 侵犯과 아울러 SLE의 罹患 및 死亡의 主因이 되고 있다.

狼瘡性腎炎患者은 全 SLE患者의 經過 中 30~50%에서 觀察되며 初發症狀으로 發現되는 境遇가 5~10%에 이르고 있다. 組織病理學的으로도 minimal change로부터 瀰漫性增殖性絲絨體炎에 이르기까지 여러 形態로 나타나며 그 分類에 있어서도 많은 論難이 있었으나 一般적으로 5類型으로 分類하며 이러한 分類는 豫後와 治療方針의 決定에도 重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現在까지 SLE 自體의 臨床的, 免疫血清學的 活動度와 腎組織病理學的 病變과의 相關關係가 檢討되어 왔으나 아직 그 基準은 물론 結果에 있어서도 一律的인

樣狀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著者들은 1979年 9월부터 1982年 1월까지 서울 大學校病院 內科에 來院하여 SLE로 診斷받은 42名의 患者 中 27名에서 腎生檢을 施行하고 腎組織學的 病變과 諸臨床所見을 比較 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1) 27例의 腎組織學的 病變은 WHO 分類에 의하여 IIa 6例, IIb 5例, III 8例, IV 6例 및 V 2例였다.

2) 臨床的 活動度와 腎機能에 따른 活動度는 腎組織病變의 分類와 無關하였다.

— 7 —

小兒의 Henoch-Schönlein 腎炎에 동반된 半月像絲絨體腎炎과 Pulse療法

서울醫大 小兒科

金熙珍·高光烈

서울醫大 病理學

金 勇 一

Henoch-Schönlein 腎炎에 있어서 組織病理學的 所見 상 높은 비율의 半月體가 있으면 豫後가 나쁘다는 보고가 있다.

저자들은 類似한 臨床的 경과를 취하는 3名의 半月像絲絨體腎炎을 同伴한 H-S 腎炎 患兒들의 臨床像, 檢査所見 및 病理學的 所見을 分析하였다.

患兒들은 14년 3개월된 男兒, 11년 6개월된 女兒 및 12년 5개월된 女兒였으며 3명 모두에서 mixed nephritic-nephrotic syndrome의 臨床的 特徵을 나타내었다. 두명에서는 肉眼의 血尿가 皮膚發疹에 先行하여 나타났다. 病初에 관찰되었던 輕度의 窒塞血症(病初 血清 creatinine, 2.6 mg%, 1.6 mg% 및 1.3 mg%)은 肉眼의 血尿가 시작될지 한달만에 急速하게 進行 惡化하여 腎不全으로 移行하였다. 각 患兒에 대하여 經皮的 腎生檢術을 시행한 결과 각각 89%, 100% 및 90%의 絲絨體가 半月體를 가지는 增殖性絲絨體腎炎을 보였다. 免疫螢光 현미경 소견상 IgA와 C₃가 3명 모두에서 mesangium에 沈着되어 있었다.

治療로서 大量의 methylprednisolone(30 mg/kg, 3~6회, 격일)을 짧은 기간 동안 靜脈內 투여하는 pulse療法을 血清 creatinine이 peak level에 있는 동안(각각 9.6 mg%, 5.3 mg% 및 8.3 mg%)에 시행하여 臨

床的 및 檢査上 顯著한 好轉을 보였다.

세명 모두 Meadow 등에 의한 臨床的 分類로는 state D에 해당하였고, 病理學的으로는 ISKDC의 病理學者들에 의한 分類에 의하면 grade V에 속하였다. 투병은 pulse療法以後 각각 7개월, 10개월간 추적 관찰 증으로 蛋白尿는 계속되나 GFR은 정상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한명은 보호자의 이해 및 협조의 부족으로 끝까지 치료하지 못하고 말았다.

小兒의 巢狀 및 分節性絲絨體硬化症에 대한 臨床·病理的 考察

서울醫大 小兒科
高光昱·崔 鎭·李煥鎭·丁海日
서울醫大 病理學
金 萬 一

著者들은 1975年以後 서울大學校病院 小兒科에 入院했던 腎症候群 患兒中 腎生檢上 巢狀 및 分節性絲絨體硬化症의 病變을 보인 20例에서 臨床, 病理的 所見과 臨床病理的 關係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平均 發病年齡은 6年 5個月이었고 男女比는 18:2였으며 平均 追跡觀察期間은 23.5個月이었다. 대부분의 患兒, 즉 18例가 他病院에서 의뢰된 경우였다.

全體 患兒中에서 發病時 同件된 腎炎의 所見의 頻度를 보면 高血壓이 55%, 一時的 總素血症이 20%, 血尿가 60%로 나타났다. 蛋白尿의 選擇性指數는 0.2以上이 82%, 0.2以下가 18%로 대부분 不良한 選擇性을 보였고 糖尿는 60%에서 同件되었다.

첫 steroid 每日療法으로 1名에서 完全寛解, 9名에서 部分寛解를 얻을 수 있었으나 10名에서는 전혀 好轉이 없었다. 部分寛解를 일으킨 例中 6例와 反應이 없었던 例中 8例가 6個月以上 追跡觀察되었는데 이중 前者의 1例와 後者의 4例가 腎機能障礙 및 腎不全으로 이행하였으며 發病時부터 腎不全까지의 期間은 1年 6個月에서 13年 10個月사이이었다. 또한 疾病期間이 5年以下인 14例中 2例와 5年以上인 6例中 3例에서 腎不全으로의 移行이 있었다.

腎生檢의 所見은 巢狀 및 分節性絲絨體硬化가 全體絲絨體의 4.5~82.4%를 차지했으며 球狀硬化를 同件한 例들도 있었다. 細尿管 및 間質의 變化는 絲絨體硬化에 比例하였다.

分節性硬化를 일으킨 絲絨體가 全體 絲絨體의 20%以下이었던 4例는 모두 첫 steroid 每日療法에 完全 또는 部分寛解를 보였으며, 20~30%이었던 8例中 4例와 30%以上이었던 8例中 2例에서 部分寛解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3名의 死亡例와 腎不全 또는 腎機能障礙가 있던 例 및 持續的 腎症候群을 보이며 steroid에 계속 反應이 없던 患兒들에서 硬化性病變의 %가 높았었다.

결국 硬化性病變의 정도는 steroid에 대한 反應度 및 長期的 豫後와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정도가 20~30%를 초과할 경우 不良한 steroid 反應 및 豫後를 나타내고 있다.

腎症候群을 同件한 血管外皮細胞腫 1例

全北醫大 內科
朴毅弘·姜碧貴

Renal hemangiopericytoma는 1955年 Black와 Heineman이 처음 報告한 것으로 신장의 juxtaglomerular apparatus部에 capillary pericyte에서 유래하는 아주 드문 신종양이다. Robertson은 本腫瘍시 고혈압이 同件된 것을 보고하였으며, 1973年 Conn은 이 종양에서 renin이 분비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著者들은 16세 女性이 전신부종으로 4個月 동안 고생하다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체중 50 kg, 혈압 120/80 mmHg이고 혈청단백 3.3 g(A/G 1.4/1.9), 총 cholesterol 700 mg%, triglyceride 612 mg%, 혈청 creatinine 0.9 mg%, BUN 35 mg%, Na⁺ 145 minq/l, K⁺ 3.8 minq/l이고 creatinine 제거율 59 ml/min였다. 요단백(卅), 24시간 총 요단백량 6.5 g이고 요중 Na⁺ 140 minq/24 hr, K⁺ 118 minq/24 hr였다. 右側 腎동맥조영술상 huge enlarged kidney였으며 腎生檢所見상 hemangiopericytoma로 판명되었다.

성인 신증후군의 형태학적 분류와 Prednisolone 치료 효과

경희의대 내과
양인명·한인권·김명재·이희발

1980년 4월 1일부터 1982년 3월 31일까지 경희대학